

# “스승배출 도량답게 내실 만전”

## 수요 인터뷰

### 운문 비구니승가대학원 초대원장 명성 스님

## 연구실·장서각 2백여평 완공단계

- 비구니승가대학원 개원의 의미에 대해 들려 주십시오.  
▲비구니대학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발원해 온 교육사업입니다. 승가구성에 있어 비구니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강원중심의 교육체계를 한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크셨는데요.  
▲체제가 완비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행화도도 예상됩니다. 건물물 급하게 지으면 부실시공이 되기 쉬우므로 차근차근 골격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형식과 모양 갖추기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시는 거 더 급성무라고 생각합니다.  
비구니 대학원으로는 처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불사의 첫 단추를 여는다는 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사 양성교육기관이 출범했다. 5월 27일 조계종 교육원의 정식 인가를 받아 이달내 현판식을 가질 운문비구니승가대학원 초대 대학원장 명성스님(운문사 주지·운문승가대학 학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교과목 내전·외전 폭넓게 보조국사 저서 등 교재 검토 6학기 전문과정 개설 예정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문사 승가대학만 하더라도 3개 외국어를 비롯 컴퓨터 선두도 피아노 등의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교육원 및 여러 대덕스님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치문이나 서장의 분량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나라 보조국사

나 서산대사의 저서를 교재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사서 노장 사상 등도 교과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밀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중이지요.  
- 학제와 입학자격은 어떻게 짜여 집니까.  
▲학기는 1월20일 개강하여 7월19일 종강하며 2학기는 7월20일 개강하여 다음해 1월 19일 종강합니다. 수학기간은 수의과정 4학기를 기본으로 하여 6개 학기의 전문과정(박사과정 해당)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의과정은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생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전문과정 입학은 수의과정 이수자로서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교육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합니다.  
승가대학원에는 태연 선혜스님등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6명의 교수진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비구니 승가대학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학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에 마음껏 몰두 할 수 있는 교육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운문승가대학원은 수행자들의 참다운 사표가 될 수 있는 스승을 배출하는 곳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대학원 교육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유통교해(流通敎海)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청도 운문사·이은호 기자

## 복지법인 설립 어떻게

## 1곳 지자체 2곳 이상 복지부에 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장학금 연구비 장려비 등 장학목적이나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불행 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사업으로 나뉘며 교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 유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운영비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방법과 절차는 먼저 1개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2개기관 이상과 각지역에 시설이 분포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설립 기본재산은 기부 및 무상취득재산 임여금 적립금 등으로 복지법인의 경우 2~3억 지원제한법인은 5억이상이 필요하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재산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설립신청이 접수되면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자산요건을 갖추고 목적사업이 구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서는 공익사업일 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결정관계로 설립신청이 허가까지 다소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설립허가가 나면 사업계획서 예산이 기입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사항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인감사증명서 및 부속명세서를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김원우 기자

“사람을 꽤 죽어 가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만약 당신들의 형이나 동생이 무참히 맞아 죽었다면 심정이 어떻겠는가.”  
“숨진 젊은이가 설사 프락치였다 하더라도 숨질때까지 때린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선량한 시민 李石(23·선반기능공)씨가 4일 한총련 시위학생들에게 경찰 프락치로 불려 집단폭행당해 숨졌다. 柳志雄(22) 수경이 2일 한총련의 한양대 시위를 진압하다 가스차에 깔려 숨진 데 이어 발생한 이 사건의 시한을

## 목어

### 한총련의 업

아래 지방이 으깨지고 전체 피의 절반을 흘려 2명에 폭행당한 채 숨진 것일까 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람을 개패듯 때렸다는 얘기가. 아무리 무자비한 한총련이라도 통곡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 잘못을 통감할 것이다. 한총련 가담자는 모두 살인을 저지른 공업(共業) 대중이다. 망자와 그의 부모·형제 그리고 국민 안에 깊이 참회하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때 이ச்ச의 유지중수경의 회성이 없었지 않을 것이다.

“입으로는 통일과 민족을 말하는 학생단체가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폭력의 시대는 끝났다. 남은 일은 학업에 전념하면서 학생운동의 방향을 봉사활동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 것인가에 힘을 기울이는 것 뿐이다.”  
이석씨에게 폭력을 가한 한총련학생 2명이 5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진압봉으로 이석씨를 때리며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시신부검 결과 이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차별 구타를 당해 숨졌다. 피부는 분노하고 있다. 한총련의 빛나던 시위에 적개심까지 표시하고 있다. 언론도 일제히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총련 깃발 내려야’, ‘한총련 끝내야 한다’, ‘한총련 해체하라’, ‘시민적인 한총련 폭력’, ‘한총련은 환상서 깨어나라’ 일간지들은 이런 사실을 통해 한총련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적군을 포로로 잡아도 그렇게는 못한다. 이쯤되면 한총련은 학생집단이라고 보다 폭력 살인집단이다.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

각 사찰은 15일까지 해당과세관청에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와 관련 사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은 미리 해당과세관청에 수익성이 강한 토지(상가 호텔부지 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를 경내지로 등록하는 것이다. 해당 관청 부과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면 과세를 관철시킬 수 있다.

## “삼보정재 유실막자”

### 조계종 종토세 비과세 대응지침

#### 과세공람(6월 1~15일)·이의신청(16~25일)

종합토지세 관련 법적일정은 다음과 같다. 과세공람기간 1일~15일, 이의신청기간 16일~25일, 자료보충 및 적정성 판단기간 7월~8월, 종합토지세 부과기간 10월1일~15일, 종토세납부기간 10월16일~31일, 이의신청기간(종합토지세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10월~12월이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2일 종합토지세 비과세 법적대응 근거 및 지침을 마련, 전국 각 본말사에 시달했다.  
김종근 기자

을 놓고 볼 때 사찰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부당하게 유실되는 삼보정재를 지킬 수 있다. 현재 종합토지세는 전통사찰의 경우 수익성이 강한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일반사찰의 경우 종교교육목적 용도(수행 전법 교화에 사용되는 토지와 스님 주거토지) 이외의 경우에만 과세된다. 그러나 해당관청과 경내지의 범위를 둘러싸고 종합토지세의 부과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찰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법적근거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피해사찰 공동대처 모색 ‘첫발’

### 20일 환경분쟁사찰 연석회의 ‘의의’

최근 사찰 환경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관공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사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익성 개발정책으로 수행공간 침해는 물론 휴식처까지 빼앗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능관)가 20일 ‘환경분쟁 사찰연대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0여개 사찰이 분쟁 중에 있다.

회의의 실무담당자들이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찰의 공동문제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는 예방적인 측면도 강하다.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정서적인 지도자로서 지역민과 유대를 강화할 때 사찰환경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즉 사찰환경피해 발생이

개발행정 미온태도 반성 사회문제로 여론환기 후 대책보다 사전에 개발정책에 따른 정보교환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의 방점이다. 이번 환경분쟁연석회의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분쟁사찰 실무자들이 처음으로 ‘환경분쟁 사찰의 대응방법(연대사업)’ 등 지구력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스님들의 수행과 신도들의 신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찰환경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동안 교계는 환경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찰환경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포괄적이며 근원적인 문제라는 접근이 아니고 잠기화되기 일수였기 때문이다. 가야산 해인포장건설반대운동이 대표적. 교계는 무조건 반대입장이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교계의 미온적인 대응방법으로 인해 정성 백양사, 부산 범어사, 남양주 봉선사 등 20여개 사찰이 분쟁 중에 있다. 이번 연석회의의 특징은 환경분쟁 사

## 은수리에 자비광명을 주시옵소서

### 一鵬尊者現下涅槃 1週忌追慕大法會 및 萬燈佛事

####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귀의 삼보 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보덕이 항상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우리 중생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정 설립 초대법왕 일봉존자에하의 열반 일주기를 맞아 추모대법회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실줄 사료되으나 부디 동참하시어 존자의 유업을 기리고 일주기 추모대법회가 원만하게 회향되길 기원드립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6월 13일 (음 5월 9일) 오후 1시
- 장 소 : 법왕청 대법당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세검정)
- 등보시금 : 한등당 10,000원 (1인 1등에 한함)
- 접 수 처 : 본 봉행위원회 ☎ (02)395-0162~3/379-3511~2, FAX 379-3513
- 기타사항 : 1) 중식공양은 지학식당에서 행함  
2) 문의사항은 봉행위원회에 연락바람

## 일봉존자에하열반 일주기추모대법회 봉행위원회

대 법 주 송 서 암  
법 주 현 봉 해  
회 주 김 무 찰  
봉행위원장 홍 학 암 합 장

## 대둔사 참선수련회 Zen Retreat

여기 속박과 혼돈을 떠난 한 세상이 있다.

한국 선가의 귀감인 서산대사의 화두선풍에 뜨거운 번뇌를 식히옵시다.

### 일 정 표

차 수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 7일(월)~11일(금)	39명(남:19명, 여:20명)	19세~50세
2차	7월14일(월)~18일(금)	39명(남:19명, 여:20명)	19세~50세
3차	7월21일(월)~25일(금)	39명(남:19명, 여:20명)	19세~50세

자원봉사자 수련경험자로 매 차수마다 4명

### 신청서 양식

대둔사 참선수련회 참가신청서

이름  성명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및 팩스

직업 (구체적으로)

희망차수: 제  차

수련회 경험 유무

별) 회) ) 수) 번) 제) 차)

참가요청(가제하)

년 월 일

신청인

- A4용지에 좌측 양식대로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 참가신청서는 본인이 기재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및 친지는 참가 차수를 달리해야 합니다.
-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 신청마감일은 우체국 소인6월21일분까지입니다.
- 6월27일까지 참가부수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 동참금은 7만원입니다(자원봉사자는 면제).

- 보낼곳 : (우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사 수련원
- 문의처 : 종무소 ☎(0634)34-5502, 5503 팩스 (0634)35-5357
- Foreigners may join. An opportunity to sit a Korean style Koan Zen Retreat to be held at Daehungsa Buddhist Monastery. Send enquires and applications to: Retreat Centre, Daehungsa, Gurimni Samsanmyon, Haenamgun Chonnam 536-810

불기 2541년 5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둔사(대흥사) 주 지 천운 합 장  
수련원장 지 수 합 장